

전북대 성주환·동재호 대학원생, 항공 공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성주환·동재호 대학원생(유연인재전자공학·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열린 항공우주시스템 공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동재호 대학원생

성주환 대학원생

이에 따르면 성주환 대학원생은 초음파 센서에 활용되는 압전세라미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로 동재호 대학원생은 드론용 에어백의 충격력을 분석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상을 인정받았다.

두 학생이 소속된 강래형 교수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안전성 증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강 교수는 “향후 고속화되는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해 기존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이란 용어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돌봄서비스 영양교육 진행

무주종합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일환으로 18일 영양교육 ‘여름을 부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양교육 ‘여름을 부탁해’는 여름철 취약노인의 영양상태를 개선, 음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자는 의도로, 건강의학·예방과 영양교육, 원기복을 위한 식품 등을 지원한다.

이날 영양교육에서는 여름철 건강지킴 수칙과 노인에게 영양소 1일 섭취 필요량을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길 수 있도록 숙지시켰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홍고 관장은 “예년보다 높은 온도와 찾은 폭우로 삼복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저하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 변산면 1대대 군장병, 침수피해 복구 지원

변산면(면장 허진상)이 332mm 상당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17일 오후, 홀몸 어르신 침수피해주택 복구지원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근처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를 하였으며, 17일 오후 변산면과 1대대 군장병들은 어르신이 무사히 태우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주택 침수로 영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도왔다.

허진상 변산면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온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7733부대 1대대, 진안 상전면 피해지역 긴급복구

18일 진안군 상전면 호우 피해지역에 진안군 7733부대 1대대(대장 원상석) 군 장병 24명이 토사로 막혀있는 배수로 등에 출동해 긴급히 복구했다.

집중호우로 토사로 막혀 있는 배수로 중에 굴삭기 등 장비 투입 곤란한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배수로의 토사제거, 모래주머니 쌓기 쓰러진 나무를 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복구활동에 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맞춰 주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예정이다.

원상석 대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다회용품 사용 순환경 실천할 때”

전북도, 전북대 총학생회 등과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협약 체결

전북도는 커피전문점이 밀집돼 1회용컵 사용량이 많은 도내 주요 대학로를 중심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커피전문점 대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속협 협체 대표, SK텔레콤 이준호 부사장, 덕진지역센터 박준홍 센터장, 행복카페 박대호 상임이사, 학생대표로는 전북대학교 박건우 총학생회 시설운영국장, 동행업체 대표로는 빙타이 전북대점 권나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단체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과 함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천원을 환불받고 300원의 탄소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학교 교내와 대학로에 위치한 18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했는데, 무인 회수기는



일부 참여 커피전문점과 전북대학교 종양도서관 등에 종 7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된 컵은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세척시설로 모아져 세척·살균·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게 된다.

특히,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인 해피해빗을 통해 가장 가까운 반납장소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보증금과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순환경 실천해야 할 때”라며,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 나운3동, 나눔 실천 ‘착한가게’ 가입 이어져

군산시 나운동에 이웃 사랑을 위한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종석)가 18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나이스마트(대표 도용주), 더케이에너지(대표 이상민), 광평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이홍철) 3개소에 인증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운3동 ‘착한가게’는 현재 70개소가 동참했으며,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석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감사드리고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관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석권 나운3동장은 “이웃사랑을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착한가게를 통해 더불어사는 삶에 동행해주시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나운3동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함으로써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가게를 밀하며, 자영업자, 학원,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참여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읍시 유튜브, ‘정읍시 shorts 영상 공모전’ 6월 우수작 선정

제1회 정읍시 쇼츠(shorts) 영상 공모전 대상작으로 입암면 사무소의 ‘정읍 9경꾼’이 선정됐다.

대상작은 포함한 총 여섯 편의 수상작은 최신 유행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과 코믹한 소품 등으로 정읍 9경을 홍보해 누적 조회수 2만 2299회, 좋아요 1799회 달성하는 등 유튜브 시청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 영상 중 1차 내부 심사에서 6편을 선정하고, 2차 시청자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

정읍 9경꾼을 비롯한 모든 수상작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대상 1편, 최우수자 2편, 우수작 3편 등 수상작에는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정읍시립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쇼츠 영상으로 정읍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고자 개최한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주제



로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쇼츠 영상 공모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정읍시의 모습을 담아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영상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집중 호우 재해 대비 긴급 현장 점검

남원소방서는 소재실 소방서장이 지난 17일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하천 등 제방 유실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섬진강 금지면 제방 붕괴되어 33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3,760여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한바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조산동 지하철도, 금지면 금곡교, 지리산 육모정~정령치 낙석 발생도로, 지리산 뱃사골 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현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출동 소방력·장비 100% 가동 상태 유지 △저지대 및 침수·산사태 우려지역 순찰 강화 △위험지역 소방차량 근접 배치 △유·무선 통신망 상시



개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 △내·외근부서 직원 비상근무 소집 등을 지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서 수확한 옥수수 취약계층에 전달

남원시 도통동(동장 김윤자)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덕교)에서 지난 17일 옥수수 50t(환가 70여 만원)을 수확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옥수수는 휴경장에 직접 심어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직접 수확한 것으로, 경로당 및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방문 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덕교 위원장은 “더운 여름날, 체력과 임まい가 떨어진 이들에게 이 옥수수의 달짝지근함이 마음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김윤자 도통동장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장을 전하며 “행정에서도 다양한 취약 계층을 살피며 적극적인 발걸음을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경찰, 농협 이백·보절 직원에 감사장 수여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1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남원농협 이백·보절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각 지점 직원은 각 1,200만원, 1,400만원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현금을 인출하라.”는 경찰관 사정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온행을 방문하였으나, 디랑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김진형 경찰서장은 “이번 같은 금융사기 예방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남원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저소득층 어르신 장수 사진 전달

남원시 아영면(면장 윤종철)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용환 민간위원장)가 지난 14일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13명(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생애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주시라는 바탕으로 추진, 특히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대에 맞춤형복지 담당과 직접 방문 활동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사진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마치 영광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장수 사진을 찍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흐뭇해 하셨으며, 김용환 위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진 준비가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이 무병장수 하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종철 아영면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살기 좋은 아영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업지키기운동 전북·부안군지부, 이웃돕기 기탁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전북본부(본부장 박병철 NH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와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는 18일 부안군을 찾아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달라며 선종기와 삼계탕 등 약 9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삼형 지부장은 “지역사회 밭전을 위해 수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삼형 지부장은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농업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십사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